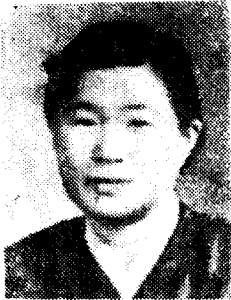


가정학 연구에 힘 쓰자

가정과 편수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주 월 영
문교부 편수관



글 쓴 이
.....

가정과 교육

이 40년의 세월
에 걸쳐 발전해
온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서 문헌(文獻)이
없는데 대하여
우리는 때때로

부끄러움을 면치 못 할 입장에 놓여 있다
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現在) 가
정과 대학수가 21이며, 학생 수가 2,860명이
다. 각 방면으로 상당한 발전이 있다고 본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서적이 최
소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 책을 쓰지
않는 것도 아니다. 좋은 Idea도, 원고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출판을 못하고 있는 현
상이다. 재정난에 빠진 출판사들이 한 꺼
번에 밀천이 빠지지 않는 책들을 출판하
지 않으므로 출간이 되지 않고 있다.

또 한 면으로 본다면 가정과를 전공한
사람들이 책을 그다지 사 보지 않는다는
결론도 면치 못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의 전공분야를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연
구를 끊임 없이 하여 가면서 책을 많이 쓰
고 또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업 가정과 관계의 발전을 위하
여서 문교부에서는 국정으로써 금년에 20종
의 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재가 될 수 있는
책들을 편찬중에 있다. 국정은 국가에서
그 책의 내용을 심의하고 편찬하여 비용도
일부 부담하여서 만드는 책이며, 가장 책임
있는 책이다. 이렇게 하여서 만든 책을 염
가로 판매하고 있으나, 그다지 소비되지 않
는 것을 보면 역시 이방면 전공자들이 그
다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과
관계로서 작년도에 나간 것이 “서양요리”,
금년도에는 가정과 교사용 지도서(중·고등
학교), 양재(洋裁), 한요리(韓料理) 등이
연말까지 나올 예정이다.

우리는 협력하여서 우리의 연구한 것을 출판하여서 가정과 교육을 또는 가정과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책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자기의 학식, 자기의 주관, 자기의 특별한 기술 경험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학식이 인용될 경우는 양해를 구하여야 하며, 또는 인용한데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해방후 급속한 시일을 두고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생활 경험 문헌등으로 정리하느라고 절차를 잊어 버린 관계도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 저작자 협회(International Copy Right Association)에 가입하지 않은 관계로 외국인의 학식을 인용한 때에도 국제 저작자 법(The Law of International Copy-Right)에는 저축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예의상으로 인용할 때는 양해를 구하여야 된다. 그러므로 국내 사람의 책에서 그대로 인용할 경우에는 물론 양해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가정학도들도 세계 다른 나라 여성들과 같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여력(餘力)으로 우리 나라 가정학의 발전을 위하여 유능한 능력을 가정학 연구에 기울여서 좋은 문헌을 남겨 주시기 바라 마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의 가정학 분야의 개척자로서 공헌 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는 빵을 위하여서만 직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우리의 Better Living을 위하여서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정학 및 가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서 좋은 개척자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나라에서는 이 분야만은 여성에게 맡겨진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가정학을 전공한 또 가정학에 취미를 가진 분들이 협력하여서 우리의 여성만이 쌓아 올린 이 탑을 더욱 굳세고 단단하게 더 쌓아 올리도록 노력 하여 보자.

특히, 가정과 교육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알맞게 Curriculum을 발전 시켜서 계획하신 것을 중앙으로 보내 주시고, 많은 의견들도 보내 주시기 바란다. 현재의 Curriculum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여론도 수집하여서 개선하는 것 즉 Curriculum Development를 하여 가야 한다. 이 점에도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기탈없는 의견을 환영하여 마지 않는다.

가정과 외래어(外來語) 표기법(表記法)의 안(案)도 작성되어서 여러 권위있는 분들에게 전달될 것이니, 잘 검토 하여서 조속한 시일 내로 보내 주시기 요망한다.

이러한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의 가정학 분야의 발전으로 믿고 기뻐 마지 않는다.